



◆ 도시 생활환경, 「숲속의 도시」로 탈바꿈 한다

-산림청, 도시숲 조성·관리 강화 위한 「도시림 기본계획」 발표-

수목보다는 잔디 위주로 조성되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을 주던 전국의 도시공원이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 등으로 구성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휴식 및 경관기능 등이 뛰어난 도시숲 형태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16일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발표한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공원, 녹지, 유원지 등에 존재하는 도시림의 조성·관리에 「도시림 관리지표」를 마련하여 지역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그 기능을 구분하고 기능별 관리, 녹색 네트워크 구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한 체계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이 밝힌 「도시림 관리지표」는 도시림을 기능에 따라 공원형, 경관형, 방풍·방음형, 생산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도시림에 대한 숲가꾸기, 나무심기 등과 같은 관리를 기능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다. 또한 「도시림 관리지표」는 도시 외곽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도시자연공원 등과 같은 비생활권 도시림과의 연계방안과 도시림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어 이를 통해 도시녹지 공간의 생태적 건강성, 경관성, 주민 이용성 등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림청의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6.56㎡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9㎡/1인)의 2/3에 불과한 가운데 오는 2017년까지 10㎡/1인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의 도시림을 양적, 질적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도시림의 품질을 나타내는 「도시림 지속성지수」를 개발, 향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도시림 조성·관리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별 도시림 총량을 산정하고 도시림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경우 전용된 양만큼 대체 도시림을 조성하도록 하는 「녹색 총량제」를 도입하여 각 도시별 도시림의 양과 품질을 일정 목표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시림의 「녹색의 질」향상을 위하여 방치된 도시림에 토양개량, 시비, 숲가꾸기 등을 확대하여 도시림 건강성 기반을 증진하고, 도시내·외곽에 방치된 산림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체험형, 보건·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지역 녹색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역사, 전설, 구전 등을 통해 전해내려 오는 유서 깊은 지역별 마을숲에 대해서는 그 유형별 특징을 살려 복원·관리할 계획이다.

산림청 윤영균 자원정책본부장은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림과 같은 생활권 녹지가 크게 감소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녹지조차 관리가 미흡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을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문의 :산림청 도시숲정책팀

김경목 사무관 (042-481-4106)

◆ 국립자연휴양림 입간판 등 사인물, 제작·설치사업 발표

-국유자연휴양림 20년만에 친자연적 이미지 사업 착수-

오는 2008년 국유자연휴양림사업 20주년을 맞이하여 국유자연휴양림의 친자연적 이미지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간판등 사인물 제작.설치」 사업이 추진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성부근)에서는 2008년 국유자연휴양림사업 20주년을 맞아 친자연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연휴양림별, 지역별로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및 자연휴양림내 안내간판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기 위한 「국립자연휴양림 입간판 등 사인물」제작 설치·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도 등 도로변 홍보물 및 지역별 거점 국유자연휴양림내 안내간판 전면 개선 등이다. 개선의 주요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이라는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규격과 형태로 단일화하고, 목재 등 천연재를 사용하여 친자연적 이미지를 살리고 안내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국유 자연휴양림 방문고객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데 있다.

'07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량은 도로안내판, 종합안내판, 방향이정표 등 총 800여개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제작설명회는 2007년 8월 23일(14:00)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입찰 일시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일시 : 2007년 9월 11일(14:00)
- 입찰참가자격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입찰공고 : 제 200708-13407-00호 참조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조성·운영하고 있는 국유자연휴양림은 1988년 유명산, 대관령 등에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4개 국유자연휴양림을 개장하여 국민들에게 휴양서비스 및 산림문화·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국립자

연휴양림 입간판 등 사인물」제작 설치·사업으로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국유자연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금회 사업에서 제외된 도로변 및 국유자연휴양림내 모든 안내간판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시공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내용확인과 문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www.huyang.go.kr)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휴양시설팀(042 580-5553)을 통해 가능하다.

● 문 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시설팀 전동진(042-580-5553)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참나무가 시든다.

-초기단계에서 확산추세의 조기차단이 필요-

이상기후 영향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되어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방제에 나섰다.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는 지난 20일 왕산면 대기리 등 국유림 일대에서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되어 참나무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철저한 예찰활동으로 조기 발견함은 물론 확산방지를 위하여 초기단계에서 긴급방제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지역은 주로 고지대로 노추산일

원 1.0ha 4분, 만덕봉일원 1.0ha 3분, 백봉령지역 0.3ha 1분 등 총 8본이 발생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 8월 경기도 성남시 '이배재'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일단 병원균에 감염되면 참나무류가 7월 말경부터 빠르게 시들면서 말라죽는 병으로 초기단계에서 완전방제가 되지 않으면 온 산천으로 번져 나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참나무시들음병"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생현황 분석과 함께 전 인력을 동원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방제대책을 수립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목을 전량 벌채훈증방법으로 방제할 계획이다.

참나무시들음병의 외부 피해증상은 7월 말경에 줄기(특히 아래부위)에 매개충이 침입한 구멍이(직경 1mm 정도) 많이 있고, 침입한 구멍 부위 및 뿌리와 접한 땅 위에는 목재 배출물이 많이 분비되는 것이 특징으로 주변의 참나무가 시들어 가는 것을 발견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병원균 '레펠리아(Raffaelea sp. 레펠리아 속의 신종 곰팡이)균'의 균낭을 몸에 지닌 매개충 광릉긴나무좀이 참나무에 침입하여 감염시키고 감염밀도가 높아지면 피해 받은 나무가 7월말경에 빠르게 시들면서 빨갱게 말라죽으며, 고사목은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붙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있다.

● 문 의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조영석
(033-660-7710)

◆ 명품 숲 "금강소나무림" 만들기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나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위한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조종흡)는 정선으로 넘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큰너그니재의 금강소나무 숲을 되살리고 명품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4일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야생동물연합, 백두대간보전회, 생명의 숲 등 NGO를 초청하여 현재 큰너그니재 금강소나무 숲의 가꾸기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현재 수령 40~50년생 내외의 금강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숲이 솔잎혹파리 피해가 극심하고 나무가 밀생하고 있어 초두부가 말라 죽어가고 있으며 하층에 자라는 활엽수의 낙엽과 광선부족으로 자연적인 후계림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7,000년 전부터 자라온 이 땅의 향토수종인 소나무가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이 숲이 활엽수의 번성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하여 「금강소나무 가꾸기」사업 방법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자원조성팀 관계자에 따르면 "금강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올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을 견학하였으며,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를 통하여 NGO, 임업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문 의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심기호
(033-560-5540)

◆ 농경지 주변 무허가 벌채한 농민 불구속 입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감시활동 더욱 강화-



농경지 주변 산림을 무허가 벌채한 사건의 송치가 이뤄졌다.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인)는 지난 6월 29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소재 농경지 주변의 국유림에 생립하고 있는 나무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경위는 이곳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 등 219본(면적 2,443㎡)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연접한 토지소유자 주○○(당56세)씨가 무허가 벌채한 것으로, 사건 직후 토지소유자를 불러 조사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8월 24일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검사 박혜란)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강릉관리소에서는 산림내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산림피해 다발지역 및 우범지역에 대해 9월부터 특별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40명),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특별감시활동 기간 중에 신고되는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현장조사·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주민과 산악회 등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했다.

● 문 의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김남선
(033-660-7709)

◆ 임업정책자금(농특회계 용자금) 대출 마감 연장 불가 알림

2007년 임업정책자금(농특회계 용자금)의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0조의 대출 마감연장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말 까지 미대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2008년도로 대출 마감연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회 지원대상자들은 차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지역 대표 “상징숲”

- 2010년까지 난대 상징숲 20개소 지정 -

전남·북과 서부 경남 지역의 국유림에는 역사성이 있는 숲, 임상이 좋은 숲, 특수수종 집단서식지 등 보존·관리해야 할 숲이 많이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최덕호)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장성군의 삼나무·편백숲을 비롯한 장흥군 천관산의 동백나무숲, 강진군의 비자나무숲 등을 포함한 9개소 412ha의 숲을 「서부지방산림청 상징숲」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숲은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및 경영계획 수립,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하면서 대국민 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훌륭한 숲이 많다고 말하면서 우선,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에 가슴높이 지름이 80cm가 넘는 리기다소나무와 과거 궁궐을 짓는 궁재(宮材)와 배를 만드는 조선재(造船材) 등으로 쓰였을 정도로 수간이 곧고 우량한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지역의 소나무를 알려주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010년까지 “난대 상징숲” 20개소 지정을 목표로 국가의 산림자원조성 노력이 돋보여 국민에게 소개할 가치가 있는 조림성공지,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는 조림성공지, 천연림보육 등 육림을 통하여

경영·관리가 잘 이루어진 천연림 등 서부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숲(편백림, 소나무림, 희귀(난대)수종, 역사적 가치가 있는 숲 등)을 지속적으로 지정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숲, 대표할 만한 숲의 발굴과 상징숲의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및 경영계획 수립 등 전문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인 “서부청 상징숲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문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박창오
(063-620-4650)

▶ 방치된 산림도 高부가가치 자산

소득에 별 도움이 못 되는 방치된 산림을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있다.

“산림경영대행”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산주의 무관심으로 버려지다 시피한 개인 소유의 산을 산림청이 대리경영 방식으로 가꿔주는 것을 말하는데 산림경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산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버려 둘 것인가? 가꿀 것인가?

중부지방산림청(심영만 청장)은 국유림의 경영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인, 사찰, 학교, 기업 등이 소유한 사유림의 산림경영을 대행해 주기로 하고 희망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고 있다.

사찰이나 학교 주변의 환경보호를 위해 큰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얻어지는 소득이 없어 마냥 묵히고 있는 사찰림이나 학교림이 우선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주가 산림청과 산림경영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산림경영계획부터 조림, 숲가꾸기, 벌채에 이르는 모든 산림사업을 국유림 수준으로 해 줄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과 병해충 감시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산림경영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주 부담이 원칙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9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자산”이라면서 “특히 사찰과 학교, 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대규모 산을 산림청에 맡기면 산주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쾌적한 숲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진재식
041-850-4041

▶ 산림청, 산림산업 핵심수종으로 백합나무 집중 육성한다

-14일 전국도·지방산림청 조림관계자 현장토론회-

목재로서 재질이 좋고 바이오매스(biomass) 자원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백합나무가 앞으로 우리나라 산림산업의 핵심수종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과거 산림녹화시기에 전국 산림에 대규모로 식재된 리기다소나무가 노령

화되어 갱신 중인 가운데 그 대체 수종으로 속성수이면서도 목재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백합나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9월14일 국립



▲백합나무

산림과학원 유전자원부(수원소재) 백합나무 조림지에서 전국 도·지방산림청 조림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백합나무 육성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 전국의 도와 지방산림청 조림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합나무의 생육상황을 직접 보고 지역별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백합나무는 산림청에서 2003년도에 수립한 제4차산림기본계획의 경제림육성대책에서도 주요조림경계수종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산주나 일선 공무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매년 500ha 정도의 조림에 그쳐왔다.

한편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 백합나무 T/F 팀을 구성하여 백합나무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11월경에는 이를 토대로 백합나무 조림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합나무는 미국동부가 원산지로서 다양한 기후와 토양조건에 잘 적응하고, 병충해도 강하며 벌기령이 30년으로 다른 수종(50~70년)에 비해 짧다. 또한 굵고 곧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목재활용 가치가 높아 목재자원으로서 경쟁력이 높은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 문의 :산림청 산림자원팀 조백수 사무관
(042-481-4185)

◆ 산림청, 2008년도 학교숲 조성지원 시범학교 86개교 선정

산림청과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유한킴벌리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4월23일부터 6월8일까지 학교숲 조성 지원을 위한 2008년도 시범학교를 공모한 결과 최종적으로 86개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도부터 지원되는 학교숲 시범학교 사업 공모에 총 402개교가 응모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학교육외환경이 열악하지만 학교숲 조성

을 통해 교육적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는 2008년부터 연간 약1천만원씩 3년간 총 3천여만원의 학교숲 조성사업비와 민간 전문가들의 학교숲 조성·관리 기술을 지원받게 된다.

학교숲 시범학교 조성사업은 학교운동장, 학교담장 공간 등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이 부족한 도심지역에 도시숲을 확충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과 인성개발의 장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녹색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 (사)생명의숲, 유한킴벌리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된다.

산림청 이미라 도시숲정책팀장은 “학교숲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단순한 조경공사 개념을 넘어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학교숲 설계단계부터 숲의 운영·관리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며 특히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십운동으로서 선진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라고 학교숲 공모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공모 결과와 학교숲 조성에 관한 각종 자료는 ‘학교숲운동 홈페이지(www.schoolforest.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문의 :산림청 도시숲정책팀 이미라 팀장
(042-481-4105)

